

e-카드에 밀리고, 불경기에 울고, 대선으로 주저앉고, 카드인쇄업계 울상

연하장, 크리스마스카드 등 성수기를 맞은 카드인쇄업계가 비상이다. 정부가 12월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우편물을 자제시키고 e-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성수기를 맞은 카드인쇄업계의 경기가 불투명해졌다.

카드인쇄 전문업체인 C사의 관계자는 선거때만되면 카드주문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크리스마스 시즌 등 연말 성수기를 맞았으나 대선으로 인해 경기 예측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물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카드사용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e-카드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능성 카드상품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신세대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어 전통적인 카드문화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e-카드는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제작한 편지나 카드를 선택해 원하는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또한 최근 불거지는 불경기 양상도 전통적인 카드인쇄시장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주문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단체주문을 하던 연하장 주문량이 몇 년째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e-카드로 대신하겠다는 계획이 줄을 서고 있다. 또한 신세대들을 겨냥한 e-카드의 기능은 날로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카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e-카드는 동영상은 물론 음성과 배경음악을 첨부하는 입체적 멀티미디어 포

현이 가능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카드와는 달리 카드구입과 발송이라는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직접 이미지를 도안할 수는 없지만 손수 도화지를 이용해 카드를 만들던 어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 제목 색깔, 배경화면, 이미지, 음악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울러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배경 음악을 곁들여 받는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한편 보내는 사람의 음성을 파일로 담아 본인의 사진이나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보이스 카드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e-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수십 여개에 달하며 해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최근 e-카드 서비스 업체는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e-카드를 보내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는 등 카드인쇄업계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e-카드 서비스업계의 회원가입이 크게 늘고 있고 카드 발송량도 하루 10만 여통에 이르는 등 최근 평소 3배 이상의 이용객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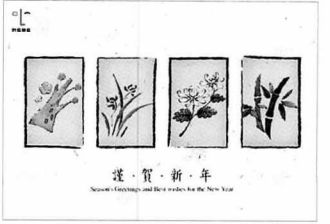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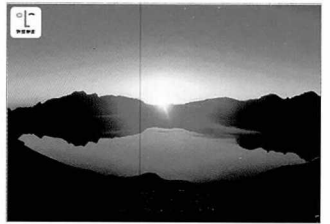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카드인쇄업계는 e-카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B사의 경우, 국내시장이 한계시장에 다다랐고 매년 주문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차 외국시장에 눈을 돌리는 한편 국내 시장은 기존 양으로 승부하던 패턴을 바꾸고 고가의 고급 카드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화시켰다. 단순한 평면디자인에서 리본, 구슬 등 부속품을 첨가해 고급 이미지를 주고 있고 수출용 카드는 외국분위기의 디자인을 연출해 다양한 국가의 욕구를 자아내고 있다. 또 이 회사는 전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미주는 물론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카드를 수출하고 있다. C사도 국내시장에서 일찌감치 눈을 돌려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인지도를 높여 미국, 동남아, 유럽 등에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카드인쇄업계가 수출시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쇄업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수출전문인력 부족과 시장개척의 한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인쇄물의 수출액은 520만2천달러로 77년에 7만7천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으나 95년 733만3천달러의 수출액을 최고로 아직까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보다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카드인쇄업계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김광륜차장 <kky@print.or.kr>



<사진 자료제공 : 카드랜드>